

2023 년 5 월 14 일 “가정-생명의 샘”(골 3:18-21)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성인이 된 인격과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내면아이가 잘 성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1] 잠잠하고 평온케 하는 어머니 품

시 131:2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뎨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뎨 아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젖을 충분히 먹고 엄마 품에서 느끼는 만족감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고백합니다. 이 상태가 내면의 아이가 자라는 조건입니다. 생명의 참 힘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환경은 부모의 품 안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고 권위적이며 조급한 성품의 부모라면 어려운 양육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시 131 편을 통해 성경적 양육 관점을 구축해 보세요.

[2] 생명의 샘

가정은 남녀의 사랑의 맹세 위에 시작됩니다. 이 사랑은 서로 받아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롬 15:7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잘 받아주려면 상대를 향한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성장이 충분하지 않아서 낮은 자존감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Virginia Satir ‘네가지 유형의 성인아이’ - 김용태 ‘중년의 배신’에서 발췌한 내용 참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긍휼히 여긴다면 내면의 성장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가족의 생명의 샘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 솟아납니다.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품이 현실적인 치유와 성장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가족을 받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내가 양육 받은 환경은 엄마 품에서 젖뎨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였습니까(시 131:2)?
내가 자란 정서적 영적 환경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가족에 대한 나의 중심적인 태도와 말은 무엇입니까? 나와 가족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할까요?